



■ 박칼린 음악감독이 말하는 '시카고'의 매력

“성인 눈높이 맞춘 퀄리티 높은 작품”

‘국내 뮤지컬 음악감독 1호’로 불리는 박칼린(42)씨는 ‘배우보다 더 유명한 음악감독’으로 불린다. ‘명성황후’, ‘미스 사이공’ 등 60여편의 뮤지컬 음악감독을 맡았고, 연가·노래 실력까지 겸비, 배우로도 무대에 서왔기 때문이다.



박칼린 감독

지컬이라는 점을 강조한 박칼린은 ‘시카고’의 ‘힐’중 하나인 ‘음악’의 매력을 소개했다. “공연장에서 들으시면 알겠지만 ‘시

카고’는 14인조 빅밴드의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는 작품이요, 목관과 금관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지요. 끈적끈적하면서도 비트 있는, 파워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질 겁니다. 한국에서 재즈 빅밴드는 굉장히 습득하기 어려운 장르예요. 배우기는 쉽지만 그 ‘필’을 내기가 어렵죠. 외국인 이 트로트나 민요를 맛갈스럽게 부르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저희 연주팀 역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고의 팀워크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배바’를 맡은 김지현씨는 독특한 캐릭터의 배우예요. 자신만의 뽀뿌를 만들어냈죠. 특히 춤을 굉장히 잘 춰요. 시카고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많은데 춤이 군더더기 없고 깔끔해요. 목소리도 독특하구요. 록시역의 배혜선씨는 노래와 춤 실력도 좋고, 철 다가가도 때론 진지한 록시역을 잘 소화해 내고 있어요. 워낙 많은 작품을 한 빌리 역의 남정주씨는 설명이 필요없죠. 작품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잘 알아채고 노련미가 풍기죠.”

“시카고” 음악은 모두 22곡. 특히 1막과 2막의 시작을 알리는 연주음악과 연주자들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흥분속으로 몰아간다. 박칼린은 처음 ‘시카고’ 연주곡들에 마음이 끌렸지만 요즘엔 뽀뿌와 마미가 부르는 ‘Class’, 록시와 남자배우들이 함께 부르는 ‘록시’ 등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칼린은 캘리포니아 예술대 종합음악과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 국악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명성황후’로 음악감독으로 데뷔한 후 ‘아이디’, ‘미스 사이공’ 등을 거치며 ‘히트작품 제조기’라는 명성을 얻었다. ‘명성황후’에도 출연했던 박칼린은 이윤택 연출의 ‘백백백’, ‘불의 가면’ 등 신산인 역의 배우 대신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공연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명성황후’ 등 참여 뮤지컬 음악감독 1호 “14인조 빅밴드 엄청난 에너지 느끼세요”

역량을 과시 중이다. “시카고”는 에너지가 넘치고 볼거리가 많은 작품이요,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무대를 보실 겁니다. 검은색 무대와 의상이 주조라 색깔이 없는 듯 하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화려해요. 또 세트는 간소하지만 볼거리가 넘쳐나요. 성인 눈높이에 맞춘 퀄리티가 높은 작품이라 자신합니다. 무대·음악은 물론이고 고급스러운 무미, 사회 비판 의식, 악과 선이 공존하는 스토리도 매력적입니다.”

기존 뮤지컬과 전혀 다른 형식의 무

광주 작가들 ‘국제 아트페어’ 대거 출품

국내 최대의 그림 장터 세계 218개 화랑 참여



진원장 교수 김대원 교수 최향씨 김숙빈씨 이이남씨

광주지역 작가들이 국내 최대 그림 장터인 ‘제7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대거 출품했다.

중앙 화단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들이 손에 꼽을 정도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KIAF가 침체된 지역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9~23일 서울 코엑스(COEX)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열리는 이번 KIAF에는 광주의 나인갤러리(관장 양승찬) 등 국내 갤러리 116개와 독일, 스위스, 일본, 프랑스, 스페인, 중국, 미국 등 해외 화랑 102개 등 모두 218개 화랑이 참여한다.

앤디워홀, 장사오강, 마크 쾨, 이우환, 박서보, 구본창 등 국내외 유명 작가 작품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여점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에서는 유수중, 김대원·진원장(조선대 교수), 최향, 김상연, 김숙빈, 박수

만, 오혜경, 이이남, 최재영, 조의현, 이정록, 양문기, 오이랑, 고근호씨 등 15명이 참가한다.

특히 중앙 화랑가의 ‘리브롤’을 받아 출품하는 지역 작가들이 눈에 띈다. 비상하는 해오라비 꽃의 아름다운 군무를 화폭에 담고 있는 유수중씨와 파꽃 연작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최향씨는 서울 진화랑으로 초대 받아 작품을 출품했다. 또 조각가 조의현씨는 청화랑, 사진작가 이정록씨는 김영섭사진화랑, 양문기씨는 박여숙화랑, 오이랑씨는 유엔갤러리, 고근호씨는 아트파크 갤러리에서 각각 초대장을 받았다.

김대원, 진원장, 최재영 등 나인갤러리와 함께 출품한 지역작가 8명도 신작을 선

보일 예정이다.

이번 KIAF는 본 행사와 함께 구분창, 권대성, 민병현, 오수환, 이강소, 이기봉, 이상남, 이영배, 이영하, 전광영 등 한국의 중견작가 10명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특별전도 마련됐다.

또 스위스 신진 작가전과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주관으로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도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사진 작가들이 화랑과 관람객 간의 작품 거래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을 통해 전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곁들여진다. 독립영화 상영, 도슨트 교육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입장료는 일반 기준 1만5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라도 수공기술의 아름다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전시회



조기종 작 ‘원일문강’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정환성)은 오는 19~10월8일까지 전라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전라도 수공기술의 아름다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 전남·북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30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전라도 장인들의 정교한 손재주와 예술혼이 담긴 문강, 함탁, 낙죽, 옹기, 청자, 음식 등 전통 공예품들이다. 소목장 송추만, 음식장 서용기, 소반장 김춘식, 선자장 이

기동, 소목장 조기종씨 등 이 지역의 대표 장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무형문화재 관련 사진과 붓, 폐백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관람객 체험 행사도 곁들여진다. 문의 062-521-904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아세안 전통음악오케스트라’ 창설

또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25·26일 광주서 2차회의

아시아 각국의 전통악기로만 구성된 ‘한·아세안 전통음악오케스트라’(이하 전통오케스트라) 창설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오는 25~26일 중앙대학교와 광주 라마다힐라호텔에서 전통오케스트라 창설과 관련한 ‘제2차 한·아세안 문화협력 프로젝트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오케스트라 창설을 위한 아시아 11개국 공동합의체 ‘한·아세안 전통음악 위원회’를 발족을 공식 선포하고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공동위원

장 2명을 위촉한다. 현재 한국측 공동위원장은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위촉됐으며 아세안 대표측 위원장은 25일 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또 위원으로는 한국의 최상화(중앙대 국악과 교수), 싱가포르의 조피터(싱가포르국립대 교수)씨 등 모두 11명을 선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 선발과 악기 편성, 공연 레퍼토리 등 세부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전통오케스트라는 지난 5월 서양 악기가 아닌 전통악기만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자는 한국측의 제안에 따라 진행중인 프로젝트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중요 콘텐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문의 02-3704-34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수근 ‘빨래터’ 감정 조작’

최명윤 명지대 교수 주장

미술품 과학감정 전문가인 최명윤 명지대 교수는 17일 “지난 7월 발표된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에 대한 과학감정 결과 보고서가 조작됐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교수는 보고서 조작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서울대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정전가속기연구소의 윤민영 교수가 빨래터의 캔버스와 액자를 1948-195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연대측정하면서 적용한 모델값은 다른 심포지엄 때 발표된 내용과 다르다며 서울대가 기존에 제시한 모델값을 적용하면 빨래터는 2000년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 theaters. It features a banner at the top with the text 'Happy Time 영화안내' and several theater logos including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and '제일 시네마'. Below the banner are several columns of movie listings with titles, showtimes, and theater names. For example, '메가박스' lists '신기전 (15세)', '20세기소년 (12세)', '맘마미아 (12세)', '미러 (18세)', '영화는 영화다 (18세)', '외톨이 (15세)', '울학교이티(15세)/꽃보다 남자(12세)', '황시 (12세)', and '방콕 데인저러스 (15세)'. '엔터 시네마' lists '신기전 (15세)', '미러 (18세)', '울학교 이티 (15세)', '외톨이 (15세)', '20세기 소년(12세)/영화는 영화다 (18세)', '지구(대행)(전제)/방콕데인저러스(15세)', and '스타워즈(전제)/맘마미아(12세)'. '콜롬버스 시네마' lists '울학교 이티 (15세)', '지구(대행)(전제)/방콕데인저러스(15세)', '영화는 영화다 (18세)', '황시 (12세)', '케로로 더무비(대행)(전제)/외톨이 (15세)', '맘마미아(12세)/꽃보다 남자 (12세)', '맘마미아 (12세)', '미러 (18세)', '신기전 (15세)', '신기전 (15세)', and '신기전 (15세)'. '씨너스 전대' lists '미러 (18세)', '신기전 (15세)/울학교 이티 (15세)', '황시 (12세)', '외톨이 (15세)', '영화는 영화다 (18세)', '맘마미아 (12세)', '신기전 (15세)', and '신기전 (15세)'. '하미 시네마' lists '지구 (전제)/꽃보다 남자 (12세)', '방콕 데인저러스 (15세)', '다크나이트 (15세)/20세기 소년 (12세)', '영화는 영화다 (18세)', '미러 (18세)', '울학교 이티 (15세)', '황시 (12세)', '신기전 (15세)', '맘마미아 (12세)', and '신기전 (15세)'. '제일 시네마' lists '신기전 (15세)', '미러 (18세)', '맘마미아 (12세)', '영화는 영화다 (18세)', '울학교이티 (15세)', and '꽃보다 남자(12세)/20세기 소년(12세)'. The advertisemen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theater and a website 'www.entercinema.co.kr'.